

## 『三國史記』에 기록된 醫藥內容 분석\*

申 舜 植·崔 桓 壽\*\*

### I. 서론

『三國史記』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最古의 史書로 고려 仁宗23년(1145년)경에 인종의 명에 따라 김부식의 주도하에 崔山甫·李溫文·許洪材·徐安貞·朴東桂·李黃中·崔祐甫·金永溫 등 8인의 參考와 金忠孝·鄭襲明 2인의 管句 등 11인의 편사관에 의해서 편찬된 중국의 正史體인 紀傳體의 歷史書이다. 체제는 삼국의 本紀·年表·志·列傳의 순서로 짜여져 있으며, 모두 50권이다. 제1권부터 제12권까지는 신라본기, 제13권부터 제22권까지는 고구려본기, 제23권부터 제28권까지는 백제본기, 제29권부터 제31권까지는 연표, 제32권부터 제40권까지는 志, 제41권부터 제50권까지는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古代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醫藥學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데에도 그 의의가 크다.

『삼국사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우리나라 고대사 관계나 신화의 연구 등 역사와 문학 분야에 치우쳐서 연구되어 왔고, 醫藥史와 관련된 연구는 金斗鍾<sup>1)</sup>이나 三木榮<sup>2)</sup> 등 일부 의과학자들이 의약과 관련된 내용만을 약간 인용하여 서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최근에 『삼국사기』에 나타난 의학 관련 기사의 분석<sup>3)</sup>에서 다룬 내용은 전면적이지 못하므로, 『삼국사기』 속에 기록된 의약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의약관련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신화 속의 의약내용·쌍둥이 출산·疫癘·병명·약물·운동·의약교류·의료제도·종교관련 내용·기타 등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의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의약관련내용으로 볼 것이냐인데, 가능한한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 본 논문은 보건복지부에서 1996년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

\*\* 韓國韓醫學研究院 醫史文獻研究室

- 1) 金斗鍾 著,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9.에서 엿볼 수 있다.
- 2) 三木榮 著,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3.에서 엿볼 수 있다.
- 3) 여인석·이규창, 『의사학』 1992: 제1권 제1호: 83-87.

## II. 본론

### 2-1. 신화 속의 한의학

기록1 : 始祖의 姓은 朴氏, 諱는 赫居世이다. …… 五年 正月에 龍이 闕英井에 나타나, 그의 오른쪽 갈빗대에서 한 계집아이를 낳았다.<sup>4)</sup>

기록2 : 처음에 그 國王이 女國王의 딸을 데려다 아내를 삼았더니, 아이를 뱀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거늘, 王이 가로되 사랑으로서 알을 낳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니 버리라고 하였다.<sup>5)</sup>

기록3 : 二十七年 四月에 …… 南新縣人이 죽었다가 달을 지나 다시 살아났다.<sup>6)</sup>

기록4 : 母는 朴氏, 葛文王 奈音의 딸이니, 어느 때 밤길을 가다가 별빛이 입 속으로 들어와 이로써 아이(儒禮)를 배었는데, 해산하던 밤에 이상한 향기가 집에 가득하였다.<sup>7)</sup>

기록5 : 王(解夫婁)이 괴이히 여기어 사람을 시켜 그 들을 옮겨 놓고 보니, 한 金色 蛙形(蛙는 一本에 蝸로 씌어 있음)의 小兒가 있었다. …… 이름을 金蛙라 하고

長成하매 太子를 삼았다.<sup>8)</sup>

기록6 : 解夫婁가 돌아가매, 金蛙가 그위를 이었다. 이 때 (金蛙는) 太白山(지금의 白頭山) 南 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얻어 (만나) 來歷을 물으니 대답하되, “나는 河伯의 딸로, 이름은 柳花라 한다. 여러 아우들과 함께 나와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제 딸로 天帝의 子 解慕漱라 하고 나를 熊心山下 鴨淥(邊)의 집 속으로 誘引하여 사육을 채운 후 곧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父母는 내가 중매도 없이 남에게 몸을 허락했다고하여 (무짓어) 드디어 이 優渤水에 귀양살이를 하게 하였다”고 했다. 金蛙는 이상히 여겨 그를 집 속에 가두었던바, 日光이 비치었다. 몸을 피하매 日光이 또 따라 비치었다. 인하여 태기가 있더니 닳되들이만한 큰 알을 낳았다. 王(金蛙)이 (상서롭지 못하게 여기어) 그 알을 버리어 개와 돼지에게 주었더니 다 먹지 아니하였고, 또 (이를) 길바닥에 버렸더니 牛馬가 (밟지 않고) 피해 갔다. 후에 들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 안았다. 王이 그 알을 쪼개 보려 하되 잘 깨어지지 않으므로, 드디어 그 어미에게 도로 주었다. 그 어미는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사내아이가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왔다. 아이의 외모가 영특하여 나이 일곱 살에 유표히 凡兒와 달리 제 손으로 弓矢를 만들어 쏘매, 百發百中이었다. 扶餘의 俗語에 善射者를 “朱蒙”이라 하므로, 그와 같이 이름을 지었다 한다.<sup>9)</sup>

4) “姓朴氏, 諱赫居世. …… 五年, 春正月, 龍見於闕英井, 右脇誕生女兒.”(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上卷, 初版 14刷. 서울: 乙酉文化社, 1995: 13·24-25.)

5) “初其國王娶女國王女爲妻, 有娠七年, 乃生大卵, 王曰: 人生而卵不祥也, 宜棄之.”(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8·27.)

6) “二十七年, 夏四月 …… 南新縣人死, 歷月復活.”(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38·47.)

7) “母朴氏, 葛文王奈音之女, 嘗夜行, 星光入口, 因有娠, 載誕之夕, 異香滿室.”(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42·49.)

8)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 金色蛙形(蛙, 一作蝸). …… 名曰金蛙, 及其長立爲太子.”(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52·260.)

9) “及解夫婁薨, 金蛙嗣位, 於是時, 得女子

기록7 : 王이 怒하여 그를 가두고 죽이려하여 아직 遂行치 않았는데, 春秋가 靑布 三百步를 비밀히 왕이 총애하는 신하 先道解에게 주었다. (그런즉) 道解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한창 술이 무르녹을 즈음에 (道解가) 웃음의 말로 “그대도 일찌기 거북과 토끼 이야기를 들었는가? 옛날 東海 龍王의 딸이 心臟을 앓았는데 醫員의 말이, 토끼간을 얻어 藥을 지으면 治療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海中에는 토끼가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 한 거북이 龍王에게 아뢰어 자기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육지로 나와서 토끼를 보고 하는 말이, 바다 속에 한 섬이 있는데, 밝은 샘물과 흰 돌에, 무성한 숲, 아름다운 實果가 있으며 추위와 더위도 없고, 매와 새매가 침입하지 못하니, 네가 가기만 하면 편히 지내고 아무 근심이 없을 것이라 하고, 이어 토끼를 등에 업고 헤엄쳐 二·三리쯤 가다가, 거북이 토끼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지금 龍王의 딸이 病이 들었는데, 토끼 肝이 있어야 약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로움을 불구하고 너를 업고 오는 것이다 하였

於太白山南優渤水，問之曰：“我是河伯之女，名柳花，與諸弟出遊，時有一男子，自言天帝子解慕漱，誘我於懸心(心，遺事作神)山下，鴉淥邊室中私之，即往不返，父母責我無媒而從人，遂謫居優渤水。”金蛙異之，幽閉於室中，爲日所照，引身避之，日影又逐而照之，因而有孕，生一卵，大如五升許，王棄之與犬豕，皆不食。又棄之路中，牛馬避之，後棄之野，鳥覆翼之，王欲剖之，不能破，遂還其母，以物裹之。置於暖處，有一男兒，破殼而出，骨表英奇，年甫七歲，疑然異常，自作弓矢射之，百發百中，扶餘俗語，善射爲朱蒙，故以名云。”(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52-253·260.)

다. 토끼가 (그 말을 듣고) 아아, 나는 神明의 後裔라, 능히 五臟을 꺼내어 씻어 넣을 수 있다. (공교로이) 日前에 속이 좀 불편한 듯하여 肝을 꺼내 씻어서 잠시 바위 밑에 두었는데, 너의 甘肅을 들고 바로 왔기 때문에 肝이 아직도 그곳에 있으니 어찌 돌아가서 肝을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너는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나는 肝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어찌 이쪽 저쪽이 다 좋은 일이 아니냐? 하니, 거북이 그 말을 믿고 도로 나가 언덕에 오르자마자 토끼는 (거북의 등에서 내려) 풀속으로 도망치며 거북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리석기도 하다. 어찌 간없이 사는 자가 있을것이라? 하니, 거북이 멍청하여 아무 말도 없이 몰려갔다고 한다” 하였다. 春秋가 그 말을 듣고 그 뜻을 알게 되었다.<sup>10)</sup>

상식적인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의학을 매개로 신화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기록을 『삼국사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10) “王怒囚之，欲戮未果，春秋以靑布三百步，密贈王之寵臣先道解，道解以饋具來相飲，酒酣，戲語曰：“子亦嘗聞龜兔之說乎？昔東海龍女病心，醫言，得兔肝合藥則可療也，然海中無兔，不奈之何，有一龜白龍王言，吾能得之，遂登陸見兔，言海中有一島，清泉白石，茂林佳菓，寒暑不能到，鷹隼不能侵，爾若得至，可以安居無患，因負兔背上，游行二三里許，龜顧謂兔曰：‘今龍女被病，須兔肝爲藥，故不憚勞，負爾來耳。’兔曰：‘噫！吾神明之後，能出五臟，洗而納之，日者小覺心煩，遂出肝心洗之，暫置巖石之底，聞爾甘言徑來，肝尚在彼，何不迴歸取肝，則汝得所求，吾雖無肝尙活，豈不兩相宜哉。’龜信之而還，纔上岸，兔脫入草中，謂龜曰：‘愚哉汝也，豈有無肝而生者乎？’龜憫默而退，春秋聞其言，喻其意。”(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286·291-292.)

## 2-2. 쌍둥이 및 출산

쌍둥이 출산에 관한 기록은 7회 나온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기록1 : 十年 …… 三月에 漢祇部の 女子가 한꺼번에 四男一女를 낳았다.<sup>11)</sup>

기록2 : 十年 …… 六月에 …… 漢祇部(國都六部の 하나)의 女子가 한꺼번에 三男一女를 낳으며, (王이) 粟 二百石을 내리었다.<sup>12)</sup>

기록3 : 七年 …… 熊川州의 向省 大舍의 妻가 한꺼번에 三男을 낳았다. 十月에 서울에 눈이三尺이나 오고 凍死者가 있었다.<sup>13)</sup>

기록4 : 十四年 …… 屈自郡(지금의 昌原)의 石南烏 大舍의 妻가 한꺼번에 三男一女를 낳았다.<sup>14)</sup>

기록5 : 六年 …… 十月에 黔牟 大舍의 妻가 한꺼번에 三男을 낳았다.<sup>15)</sup>

기록6 : 十七年 …… (이 해) 가을에 敵良州에서 白鳥를 바치고, 牛頭州 大楊管郡(지금의 江原道 淮陽郡)의 黃知奈麻의 妻가 한꺼번에 二男二女를 낳으니, 王이 租百石을 賜하였다.<sup>16)</sup>

기록7 : 八年 四月에 日本 國王이 사신을 보내어 黃金 三百兩과 明珠(夜明珠) 十箇를 바쳤다. 十二月에 枯彌縣(지금의 全南 靈岩)의 여자가 한 번에 三男을 낳았다.<sup>17)</sup>

모두 세쌍둥이 이상이다. 세쌍둥이가 3회, 네쌍둥이가 3회, 다섯쌍둥이가 1회이다. 쌍둥이는 드물기 때문에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多産이 축복이고 인구가 곧 국력으로 여기는 고대국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들 기록들은 남아의 숫자가 많거나 최소한 남녀의 수가 같은 경우를 다루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인구증가의 차원보다는 전쟁이 잦던 당시 병력으로서 남자의 중요성이 작용한 면도 보인다.

출산에 관한 기록으로는 기도하여 아들을 낳은 기록,<sup>18)</sup> 태몽을 꾸고 20개월만에 金庚信을 낳은 기록,<sup>19)</sup> 奇特한 아이 낳은

11) “十年 …… 三月, 漢祇部女一産四男一女.”(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37·46.)

12) “十年 …… 六月 …… 漢祇部女人, 一産三男一女, 賜粟二百石.”(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21·127.)

13) “七年 …… 熊川州向省大舍妻, 一産三男. 冬十月, 京都雪三尺, 人有凍死.”(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97·209.)

14) “十四年 …… 屈自郡石南烏大舍妻, 一産三男一女.”(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98·210.)

15) “六年 …… 冬十月, 黔牟大舍妻一産三男.”(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01·212.)

16) “十七年 …… 秋, 敵良州獻白鳥, 牛頭州大楊管郡, 黃知奈麻妻, 一産二男二女, 賜租一百石.”(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04·213.)

17) “八年, 夏四月, 日本國王遣使, 進黃金三百兩·明珠一十箇. 冬十二月, 枯彌縣女一産三男.”(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25·232.)

18) “七年 三月에 王이 無子함으로 해서 山川에 기도하더니 이 달 十五日 밤 꿈에 天神이 (나타나) 말하되 내가 너의 小后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터이니 근심을 말라 하였다.(七年, 春三月, 王以無子, 禱於山川, 是月十五夜, 夢天謂曰, 吾令汝小后生男勿憂.)”(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96·297·301.)

19) “舒玄이 庚辰日 밤에, 熒惑(火星)과

것을 노래한 시<sup>20)</sup> 등이 있다.

### 2-3. 疫病

疫病에 관한 기록은 28회 나온다. 역병의 현황을 계절별, 양상별, 나라별 그리고 천재지변과 관계는 어떤지 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표1·표2·표3·표4)

계절로는 겨울 10회, 봄 7회, 여름과 가을은 각각 1회씩 발생하여 역병은 겨울철과 봄철에 극성을 부렸음을 알 수 있다.(표1)

역병의 양상은 大疫(14회), 疫病(1회), 疾疫(3회), 疫(9회), 疫癘(1회)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大疫과 疫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하였다.(표2) 당시 역병에 대한 대응방

鎮星(土星) 두 별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 萬明도 辛丑日 밤에 (한) 童子가 金甲(金色 갑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堂中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얼마후에 임신, 二十개월 만에 庚信을 낳았다. 이것이 眞平王 建福十二年, 隋文帝 開皇十五年 乙卯(西紀 五九五)였다.(舒玄庚辰之夜夢, 煬或(或, 當作惑)鎮二星降於己, 萬明亦以辛丑之夜夢, 見童子衣金甲乘雲入堂中, 尋而有娠, 二十月而生庚信, 是眞平王建福十二年, 隋文帝開皇十五年乙卯也.)”(金富軾 등 지음; 李丙濂 譯註. 앞의 책(下卷), 283·290.)

20) "내가 들으니 바다 위에 金자라(籠) 셋이 있어, 그 머리로 높고 높은 산이 있고 있다네. 그 산 위엔 珠宮·貝闕·黃金殿(이상은 소위 神仙이 거처하는 궁전)이 있고, 산 아래는 千里 萬里 넓은 물결이라네.

그 곁에 짙은 한 點, 雞林이 푸른데, 자라 산 빼어난 기운, 奇特한 이 낳았도다.(我聞海上三金籠, 金籠頭戴山. 高高山之上兮, 珠宮貝闕黃金殿, 山之下兮, 千里萬里之洪濤. 傍邊一點雞林碧, 籠山孕秀生奇特.)”(金富軾 등 지음; 李丙濂 譯註. 앞의 책(下卷), 354·360.)

식은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唐의 영향을 받아 疫神을 驅逐하는 驅傩禮인 大面이<sup>21)</sup> 있을 정도였다. 역병이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大疫의 양상은 寒疫이 주가 되어 張仲景 『傷寒論』의 理法方藥으로 대응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널리 활용되지는 못한 듯 하다.

가뭄·우뢰·장마·饑饉, 계절이 아닌데 꽃이 피거나 제철인데 눈이 오지 않는 등 천재지변과 관련해서 나오는 역병기록은 17회나 되어 반이 넘는 것으로(표3) 보아 역병이 運氣論과 관계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나라별로는 고구려 4회, 백제 6(7)회, 신라 17회로 신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표4) 이는 신라가 다른 나라보다 역병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삼국사기』가 신라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 2-4. 병명

疫病·病風·喘息·手足凍瘃·痼疾·沈痼·疾苦·憂勞·忽遺疾疹·病不能行·瘡發背·傷指·凍皸·幼弱不能步·眇其一目·憂懣發疽·病在心臟·風露·傷榮衛之和·昏昏嘿嘿·精神不快 등이 보인다. 그외에 王不豫·寢疾·忽疾·病免 등이 많이 보이는데, 아프다는 것만을 표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

21) "大面 黃金빛 얼굴 그 사람이(方相氏. 黃金四目이란 說이 있음)

구슬채찍 들고 귀신 부리네.

빠른 걸음 조용한 모습으로 운치 있게 춤추네,

붉은 봉새가 堯時代 봄철에 춤추는 것 같구나.(黃金面色是其人, 手抱珠鞭役鬼神. 疾步徐趨呈雅舞, 宛如丹鳳舞雍春.)”(金富軾 등 지음; 李丙濂 譯註. 앞의 책(下卷), 158·162.)

계절	회수	회 수	비 고	총 회 수
봄(1월-3월)		1월(1회), 2월(1회), 3월(1회), 봄(4회)		7회
여름(4월-6월)		4월(0회), 5월(1회), 6월(0회)	봄-여름(1회)	1(1)회
가을(7월-9월)		7월(1회), 8월(0회), 9월(0회)		1회
겨울(10월-12월)		10월(5회), 11월(3회), 12월(2회)		10회
계절 불분명		8회		8회

표1. 계절별 疫病 현황

양상	회수	회 수	비 고
大疫		14회	
疫病		1회	
疾疫		3회	
疫		9회	
疫癘		1회	

표2. 疫病樣相 현황

천재지변	회수	회 수	비 고
우뢰		2회	
겨울 桃李에 꽃이 피		2회	전쟁(1회)
홍비내림, 가뭄		1회	
여름 가뭄		1회	
가을에 가뭄, 겨울에 눈이 오지 않음, 饑饉		1회	
饑饉		3회	
큰물이 나고 겨울에 눈이 안옴		1회	
눈이 안옴		1회	
눈이 안오고, 우뢰		1회	
地震, 우뢰		1회	
장마, 전쟁		1회	
가물고 饑饉		1회	
홍년, 饑饉		1회	
기타		11회	전쟁(1회)

표3. 天災地變과 관계한 疫病현황

나라	회수	회 수	비 고
고구려		4회	
백제		6회	「列傳」向德(1회)
신라		17회	

표4. 나라별 疫病 현황

수 없다. 위의 병명은 전문적 용어라기보다는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던 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국사기』는 의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병의 명칭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疫病이다.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고 張仲景 『傷寒論』의 理法方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溫疫보다는 寒疫이 주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의 기전은 혼치 않다.

“病이 心臟에 있다”<sup>22)</sup>와 “아침 일찍 出動하고 저녁 늦게 退勤하여 風露에 觸傷하여 榮衛(血氣)의 和함을 傷하고, 支體(四肢)의 편안함을 잃었기 때문이다”<sup>23)</sup>가 있는데, 후자는 張仲景 『傷寒論』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신라는 『傷寒論』의 理法方藥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5. 약물

『삼국사기』는 本草書가 아니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약물은 많지 않은데, 牛黃·人蔘·金芝(靈芝)·瑞芝·磁石 등이 대표적이다. 牛黃 7회, 人蔘 5회, 金芝(靈芝) 1회, 瑞芝 3회, 磁石 1회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기록1 : 二年 …… 二月 …… 六日에는 楊陝에 이르러 庾信이 阿漭 良圖와 大監 仁仙 등을 시켜 軍糧을 (唐營에) 보내고, 蘇定方에게는 銀 五千七百分과 細布 三十疋과 頭髮(다리用) 三十兩과 牛黃(藥用) 十九兩을 贈與했다.<sup>24)</sup>

22) “病在心臟”(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334·344.)

23) “早朝晚罷, 蒙犯風露, 以傷榮衛之和, 失支體之安”(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334·344.)

기록2 : 九年 正月에 …… 唐僧 法安이 와서 天子의 명령으로 磁石을 구하였다.<sup>25)</sup>

기록3 : 十二年 …… 某(文武王)는 頓首頓首 死罪死罪라 하고, 곁하여 銀 三萬三千五百分, 銅 三萬三千分, 針 四百枚, 牛黃(藥用品) 百二十分, 金 百二十分과, 四十升, 布 六匹과 三十升布 六十匹을 進貢하였다.<sup>26)</sup>

기록4 : 三年 正月에 熊川州(公州)에서 金芝(靈芝)를 進上하였다.<sup>27)</sup>

기록5 : 七年 正月에 沙伐州에서 瑞芝를 바치었다.<sup>28)</sup>

기록6 : 二十二年 …… 四月에 사신을 唐에 보내어 果下馬 一匹과 牛黃(藥用品)·人蔘(藥用品)·美髯(女子 首飾用)·朝霞紬·魚牙紬·鏤鷹鈴·海豹皮·金銀 등을 전하고, 上表하여 가로되, “우리의 곳은 海隅·遠邊의 地로서 원래 泉客(泉州商人)의 珍寶도 없고 賈人(南蠻人)의 貨財도 없어, 감히 土產

24) “二年 …… 二月 …… 六日, 至楊陝, 庾信遣阿漭良圖, 大監仁仙等, 致軍糧, 贈定方以銀五千七百分·細布三十匹·頭髮三十兩, 牛黃十九兩.”(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13-114·123.)

25) “九年, 春正月, …… 唐僧法安來, 傳天子命, 求磁石.”(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19·126.)

26) “十二年 …… 某頓首頓首, 死罪死罪, 兼進貢銀三萬三千五百分·銅三萬三千分·針四百枚·牛黃百二十分·金百二十分·四十升布六匹·三十升布六十匹.”(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41·150.)

27) “三年, 春正月, 熊川州進金芝.”(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61·171.)

28) “七年, 春正月, 沙伐州進瑞芝.”(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61·171.)

의 物로 天官(임금의耳目)을 더럽히고 駑蹇(노둔하고 쫄쫄발이)한 質의 馬로 龍威(임금의 마구간)를 추하게 하려 함이, 마치 燕豕와 楚雞에 비슷하여, 깊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戰汗(두렵고 땀이 난다는 謙辭)을 더할 뿐이다”라 하였다.<sup>29)</sup>

기록7 : 二十三年 …… 熊川州(公州)에서 瑞芝를 올리었다.<sup>30)</sup>

기록8 : 三十年 二月에 金志良을 唐에 보내어 新年을 하례하였다. 玄宗이 志良에게 大僕少卿員外置를 주고 帛 六十匹을 내리어 돌려보낼새, 詔書를 (王에게) 주니 거기에 가로되, “보낸 牛黃과 金銀 等物은 表文(羅王의 書)을 보아 자세히 알았다.”<sup>31)</sup>

기록9 : 三十三年 …… 四月에 王이 大臣 金端端丹을 唐에 보내어 新年을 하례하니 帝는 그를 內殿에서 宴見하고, 衛尉少卿의 職을 주며, 緋欄袍·平漫銀帶와 絹 六十匹을 내리었다. 앞서 王姪 志廉을 (唐에) 보내어 謝恩할 때 小馬 二匹, 狗 三頭, 金 五百兩, 銀 二十兩, 布 六十匹, 牛黃 二十兩, 人蔘 二百斤, 頭髮 一百兩, 海豹皮 十六張을 전하였더니, 이 때에 (唐帝는) 志廉

에게도 鴻臚少卿員外置란 벼슬을 주었다.<sup>32)</sup>

기록10 : 三年 正月에 …… 王이 (唐使) 邢璠에게 黃金 三十兩과 布 五十匹과 人蔘 百斤을 주었다.<sup>33)</sup>

기록11 : 十三年 …… 牛頭州(春州)에서 瑞芝를 바치었다.<sup>34)</sup>

기록12 : 九年 四月에 사신을 唐에 보내어 新年을 하례하고 金銀·牛黃·魚牙絀·朝霞絀 등 方物을 전하였다.<sup>35)</sup>

기록13 : 元年 …… 七月에 (길이) 九尺쯤 되는 人蔘을 얻어 매우 이상스러이 여기어, 사신을 唐에 보내 그것을 進奉하였더니, 德宗은 人蔘이 아니라하여 받지 아니하였다.<sup>36)</sup>

기록14 : 九年 七月에 王子·蘇判 金胤

32) “三十三年 …… 夏四月, 遣大臣金端端(端端, 冊府元龜作단嶋)丹入唐賀正, 帝宴見於內殿, 授衛尉少卿, 賜緋欄袍·平漫銀帶及絹六十四, 先時, 遣王姪志廉謝恩, 獻小馬兩匹·狗三頭·金五百兩·銀二十兩·布六十四·牛黃二十兩·人蔘二百斤·頭髮一百兩·海豹皮一十六張, 及是, 授志廉鴻臚少卿員外置.”(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67·174.)

33) “三年 正月 …… 賜邢璠黃金三十兩·布五十匹·人蔘一百斤.”(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78·187.)

34) “十三年 …… 牛頭州獻瑞芝.”(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80·188.)

35) “九年, 夏四月, 遣使如唐賀正, 獻金銀·牛黃·魚牙絀·朝霞(霞下恐脫絀字)等方物.”(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84·190.)

36) “元年 …… 秋七月, 得人蔘九尺, 甚異之, 遣使如唐進奉, 德宗謂非人蔘, 不受.”(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98·210.)

29) “二十二年 …… 夏四月, 遣使入唐, 獻泉下馬一匹·牛黃·人蔘·美鬚·朝霞絀·魚牙絀·鑲鷹鈴·海豹皮·金銀等, 上表曰: “臣鄉居海曲, 地處遐陬, 元無泉客之珍, 本乏賈人之貨, 敢將方產之物, 塵瀆天官, 駑蹇之才, 滓穢龍庭, 竊方燕豕, 敢類楚雞, 深覺觀顏, 彌增戰汗.””(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64·172.)

30) “二十三年 …… 熊川州進瑞芝.”(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64·172.)

31) “三十年, 春二月, 遣金志良入唐賀正, 玄宗授大僕少卿員外置, 賜帛六十匹, 放還, 降詔書曰: “所進牛黃及金銀等物, 省表具之.””(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65·173.)



등을 唐에 보내어 謝恩하고 겹하여 馬 二匹·麩金 一百兩·銀 二百兩·牛黃 十五兩·人蔘 一百斤 …… 四尺五寸頭髮 百五十兩·三尺五寸頭髮 三百兩 …… 瑟瑟細金針筒 三十具·金花銀針筒 三十具·針 一千五百을 전하고, 또 學生 李同 등 三人을 進奉使 金胤에 隨從하여 唐에 보내어 學業을 닦게 하고, 이내 그에게 購書料로 銀 三百兩을 주었다.<sup>37)</sup>

“上藥(上品藥)”,<sup>38)</sup> “王은 璫 등에게 金寶와 藥物을 후히 주었다.”<sup>39)</sup>라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구체적으로 明記는 안되어 있지만 위의 약물이외의 여러 가지가 삼국시대에 다양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藥食同原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 중에 일부는 식생활용품이 약물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에서 이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鹿·白鹿·松樹皮·牧丹花·魚髓·頭髮·榆星(榆關의 느릅열매)·鹽豉·葵藿(해바라기와 콩잎)·米(쌀)·酒(술)·油(기름)·蜜(꿀)·醬(간장)·豉(된장)·脯(포)·髓(식혜)·海豹皮·茶·麻·水藻·白獐(흰노루)·黑蛙(검은 개구리)·赤蛙(붉은 개구리)·鯉魚·三角鹿·長尾兔·虎

·紫獐·豹·鯨魚·夜明珠·두꺼비·개구리·龜(거북이)·玳瑁·烏犀·烏麋(검은 고라니)·牛皮·紫檀·沈香·黃楊·槐·柘(산뽕나무)·虎皮·山榆木·漆·榆皮(느릅나무껍질)·花王(牡丹의 異稱)·薔薇·烏鳥·龜(큰 자라)·鼈(작은 자라)

## 2-6. 운동

몸을 단련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은 사냥, 활쏘기, 말타기 등이 보인다. 사냥은 “田”·“獵”·“田獵”으로 기록되어 있고 52회나 나오고, 활쏘기는 “射”·“弓射”·“射藝”·“射臺”·“楛矢”로 기록되어 있으며 9회이고, 말타기는 “騎”·“馬”로 기록되어 있고 2회 나온다. 물론 사냥, 활쏘기, 말타기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식량을 구한다거나 군사적인 목적, 오락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을 것인데, 이런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스포츠의학적인 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7. 의료제도

신라에는 醫博士<sup>40)</sup>·內供奉<sup>41)</sup>·供奉醫師<sup>42)</sup>·供奉卜師<sup>43)</sup> 등의 제도를 두었고, 고

37) “九年, 秋七月, 遣王子蘇判金胤等, 入唐, 謝恩兼進奉 馬二匹·麩金一百兩·銀二百兩·牛黃十五兩·人蔘一百斤 …… 四尺五寸頭髮百五十兩·三尺五寸頭髮三百兩 …… 瑟瑟細金針筒三十具·金花銀針筒三十具·針一千五百, 又遣學生李同等三人, 隨進奉使金胤, 入唐習業, 仍賜買書銀三百兩.”(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23-230-231.)  
38)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31-132-146.  
39) “王厚贈璫等金寶藥物.”(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78-186.)

40) “十六年 二月에 醫博士·算博士 각 一人을 두었다.(十六年, 春二月, 置醫博士·算博士各一員.)”(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63-172.)  
41) “十七年 …… 四月에 醫官의 (學術) 精究한 자를 뽑아 內供奉(關內職의 하나)에 充하고 律令博士二人을 두었다.(十七年 …… 夏四月, 選醫官精究者, 充內供奉, 置律令博士二員.)”(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82-188.)  
42) “供奉醫師(後世의 典醫와 같은 것?)는 정한 수가 없다.(供奉醫師, 無定數.)”(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

육기관으로 孝昭王 元년에 醫學을 설치하여 『本草經』·『甲乙經』·『素問經』·『針經』·『脈經』·『明堂經』·『難經』을 정규과목으로하고 博士 2인을 두어<sup>44)</sup> 정식으로 한의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또, 藥房인 藥典에는 舍知 2人, 史 6人, 從舍知 2人을 두어<sup>45)</sup> 약을 전담하였다.

料理所인 肉典은 왕실의 건강식을 책임지는 곳으로 干 2人을 두었고,<sup>46)</sup> 針房은 針線 이외에도 침술과 관련된 것을 맡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女子 16人을 두었다.<sup>47)</sup>

백제에는 약을 전담하는 藥部를 두었다<sup>48)</sup>는 것을 『北史』를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2-8. 呪願

기도를하고 소원을 빌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기록1 : 七年 …… 四月에 …… 祖廟(宗廟)에 大臣을 보내어 致祭하여 가로되 (祭文에) “王某(神文王)는 稽首再拜하고 삼가 太祖大王(味鄒尼師今)·眞智大王·文興大王(眞智王子로 武烈王父인 龍春)·太宗大王(武烈王)·文武大王의(五神) 靈에 아뢰나이다. 某가 천박한 資質로 큰 基業을 承守하여, 자나깨나 근심과 勤勉으로 편안한 겨를이 없고, (다행히) 宗廟의 愛護支持와 乾坤(天地)의 주는 福祿을 입어, 四方이 안정하고 百姓이 화목하며, 異域의 來賓이 (海外的) 寶物을 실어다 바치며, 刑政이 清明하고 爭訟이 그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近日 道가 喪失한 때 王位에 臨하고 義가 乖違하매 天鑒이 보이며, 星象은 괴이하게 나타나고 火宿(太陽)은 빛을 감추매, 戰戰慄慄(두려움)함이 마치 깊은 못과 끝짜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삼가 某官 某를 보내어 변변치 않은 물건(祭物)을 받들어 如在의 靈에 드리오니, 바라건대 이 微誠을 밝혀 살피시고 이 조그만 뉘를 불쌍히 여기사, 四時의 節候를 고르게 해주시고 五事

(下卷), 257·260.)

43) “供奉卜師(陰陽卜術을 맡는 官員)는 정한 수가 없다.(供奉卜師, 無定數.)”(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257·260.)

44) “醫學(醫學校)은 孝昭王 元년에 처음으로 두어 學生들을 教授하였는데, 『本草經』·『甲乙經』·『素問經』·『針經』·『脈經』·『明堂經』·『難經』을 課程으로 하였다. 博士가 二人이었다.(醫學, 孝昭王元年初置, 教授學生以『本草經』·『甲乙經』·『素問經』·『針經』·『脈經』·『明堂經』·『難經』爲之業, 博士二人.)”(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255·258.)

45) “藥典(關內藥房)은 景德王이 保命司로 고쳤다가 후에 다시 전대로 하였다. 舍知二人, 史 六人, 從舍知 二人이었다.(藥典, 景德王改爲保命司, 後復故, 舍知二人, 史六人, 從舍知二人.)”(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257·260.)

46) “肉典(關內 料理所)은 景德王이 尙膳局으로 고쳤다가 후에 다시 전대로 하였다. 干 二人이었다.(肉典, 景德王改爲尙膳局, 後復故, 干二人.)”(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257·260.)

47) “針房(針線을 맡는 곳)은 女子 十六人

43) “供奉卜師(陰陽卜術을 맡는 官員)는 정한 수가 없다.(供奉卜師, 無定數.)”(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257·260.)

44) “醫學(醫學校)은 孝昭王 元년에 처음으로 두어 學生들을 教授하였는데, 『本草經』·『甲乙經』·『素問經』·『針經』·『脈經』·『明堂經』·『難經』을 課程으로 하였다. 博士가 二人이었다.(醫學, 孝昭王元年初置, 教授學生以『本草經』·『甲乙經』·『素問經』·『針經』·『脈經』·『明堂經』·『難經』爲之業, 博士二人.)”(金富軾 등 지

(貌·言·視·聽·思)의 徵을 잘못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곡식이 잘되고 질병이 없어지고 衣食이 풍족하고 禮義가 갖추어지고 中外가 平安하고 盜賊이 사라지며, 後孫에게 寬裕를 내리어 길이 多福을 누리게하여 주소서. 삼가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sup>49)</sup>

기록2 : 일찍이 누리가 있어 西쪽에서 涇江鎮 경계로 들어오는데 꾸물거리며 들판을 덮으니, 백성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 巖이 山마루에 올라가 焚香하고 하늘에 기도하니 갑자기 風雨가 크게 일며 누리가 다 죽어 버렸다.<sup>50)</sup>

### 2-9. 체질

“居柴夫가 돌아오려 할 때 法師가 또 말하기를 “그대의 相을 보니 제비턱에 매의 눈이라, 장래에 반드시 將帥가 될 것이다. 만일 군사를 거느리고 오거든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하였다.”<sup>51)</sup>라는 기록에서 觀

相보는 것이 의학에도 이용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 2-10. 장수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이 장수일 것이다. 사는 동안 건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만으로 놓고 볼 때, 100세이상 3회(119세 1회, 113세 2회)이고 98세도 1회나 보인다.

### 2-11. 신경정신병

憲德大王14년(822년)에 上大等 忠恭 角干이 政事堂에 앉아 內外 官員을 銓衡한 뒤 公事에서 물러나와 병이 들었다. 官醫는 “病이 心臟에 있어 龍齒湯을 복용해야 한다”는 진단과 처방을 내 주었다. 드디어 그는 21일간의 휴가를 얻었다. 이때 녹진이 강력한 손님방문사설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찾아가 “듣자온즉 貴體가 未寧하시다 하오니 相公께서 아침 일찍 出動하고 저녁 늦게 退勤하여 風露에 觸傷하여 榮衛(血氣)의 和함을 傷하고 支體(四肢)의 편안함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까”라고 묻자 각간은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릿어릿(昏昏嘿嘿)하여 정신이 불쾌한 것뿐이다”라고 대답 하였다. 각간은 감기에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정치 못한 인사안배에서 생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간파한 녹진은 藥이나 鍼이 아닌 올바른 인사정책을 펴게하는 지극한 말과 높은 談論으로 마음을 깨쳐주는 치료를 하고 있다. 녹진의 말이 藥石과 같다는 角干의 말에서부터 鍼治療·藥物治療·精神治療 등을 당시에도 구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52)</sup>

49) “七年 …… 四月 …… 遣大臣於祖廟, 至祭曰: “王某, 稽首再拜, 謚言太祖大王·眞旨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靈. 某以虛薄, 嗣守崇基, 寤寐憂勤, 未遑寧處, 奉賴宗廟獲(獲, 當作護)持, 乾坤降祿, 四邊安靜, 百姓雍和, 異域來賓, 航琛奉職, 刑清訟息, 以至於今. 比者, 道喪君臨, 義乖天鑒, 怪成星(星, 當在成上)象, 火宿沈輝, 駭戰慄慄(慄慄, 舊本作慄慄, 蓋訛誤也.), 若墜淵谷. 謹遣使某官某, 奉陳不腆之物, 以虔如在之靈, 伏望炤察微誠, 矜恤眇末, 以順四時之候, 無愆五事之徵, 禾稼豐而疫癘消, 衣食足而禮義備, 表裏清謐, 盜賊消亡, 垂裕後昆, 永膺多福, 謹言.”(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58-159-169.)

50) “嘗有蝗蟲, 自西入涇江之界, 震然蔽野, 百姓憂懼, 巖登山頂, 焚香祈天, 忽風雨大作, 蝗蟲盡死.”(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310-313.)

51) “居柴夫欲還, 師又語曰: “相汝齋額鷹

視, 將來必爲將帥, 若以兵行, 無貽我害.”(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316-326.)

52) 憲德大王 十四年에 王이 嗣子가 없으므로 아우 秀宗으로써 太子를 삼아 月池宮에 들게 하였다. 이때 忠燕 角干이 上大等이 되어 政事堂에 앉아 內外 官員을 銓衡하였는데 公事에서 물러나와 병이 들었다. 官醫를 불러 診脈하니 “病이 心臟에 있으므로 龍齒湯을 복용하여야 한다” 하였다. 드디어 그는 三七日(二十一日間)의 휴가를 얻어 문을 닫고 賓客을 만나지 아니하였다. 이때 祿眞이 찾아와 뵈기를 청하였는데 문지기가 막고 들어지 아니하였다. 祿眞이 말하기를 “下官은 相公께서 病患으로 해서 客을 사절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꼭 한말씀을 左右(相公)에 드려서 답답한 근심을 풀어드려야 하겠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다. 뵈지 않고서는 물러갈 수 없다.” 하니 문지기가 再三 往復하다가 불러들여서 뵈게 되었다. 祿眞이 나아가 말하기를 “듣자온즉 貴體가 未寧하시다 하오니 相公께서 아침 일찍 出勤하고 저녁 늦게 退勤하여 風露에 觸傷하여 榮衛(血氣)의 和함을 傷하고 支體(四肢)의 편안함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였다. 말하기를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릿어릿(昏昏嘿嘿)하여 정신이 불쾌한 것뿐이다” 하였다. 祿眞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公의 病患은 藥이나 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말과 높은 談論으로 한번 쳐서 깨칠 수가 있는데 공이 들어 주시겠습니까” 하였다. “그대가 나를 멀리 버리지 않고 특별히 光臨해 주었으니 玉音을 들려서 나의 가슴 속을 씻어 주기 바라노라” 하므로 祿眞은 이렇게 말하였다. “木工이 집을 짓는데 材木이 큰 것은 보와 기둥을 삼고 작은 것은 서까래를 삼으며, 흰 것 곧은 것이 각기 적당한 자리에 들어간 후에야 큰 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진 재상이 政事를 하는데 있어서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큰 人材는 높은 職位에 두고 작은 人材는 가벼운 소임을 준다면 안으로 六官 百執事와 밖으로 方伯 連率 郡守 縣令에 이르기까지 朝廷에는 빈 직위가 없고 직위마

다 부적당한 사람이 없을 것이며 上下의 질서가 정해지고 賢과 不肖가 갈릴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王政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私에 의하여 公을 滅하고 사람을 위하여 官職을 擇하며 사랑하면 비록 材木이 아니더라도 아주 높은 곳으로 보내려 하고 미워하면 有能하더라도 구렁에 빠뜨리려 하니 取捨에 그 마음이 뒤섞이고 是非에 그 뜻이 어지럽게 되면 비단 國事가 混濁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 역시 수고롭고 病들 것입니다. 만일 官職에 있어서 清白하고 일에 당하여 恭勤한다면 뇌물의 문을 막고 請託의 폐단을 멀리하여 陞進과 降等を 오직 그 사람의 어둠과 밝음으로써 하고 주고 빼는 것을 사랑과 미움으로써 하지 아니할 것이며, 저울처럼하여 輕重을 잘못하지 않고 먹줄처럼하여 曲直을 속이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刑政이 민음직하고 國家가 和平하여 비록 孫弘(公孫弘, 漢武帝 때 名臣)과 같이 문을 열어 놓고 曹參(漢初의 賢臣)과 같이 술을 내면서 朋友故舊들과 談笑하고 즐거워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服藥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부질없이 時日을 소비하며 일을 폐지할 것이겠습니까” 角干은 이에 醫官을 사절해 보내고 수레를 명하여 王宮으로 入朝하니 王이 말하기를 “卿은 날을 정하고 服藥한다 하였는데 어찌하여 來朝하는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臣이 祿眞의 말을 들으니 藥石과 같았습니다. 어찌 龍齒湯을 마시는데 그칠 정도이겠습니까” 하며 이어 王을 위하여 일원이 이야기하였다. 王이 “寡人이 인군이 되고 卿이 首相이 되었는데 이렇게 直言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太子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지 않을 수 없다. 月池宮(太子宮)으로 가라” 고 하였다. 太子가 이 말을 듣고 들어와서 하례하기를 “일찍이 듣사온즉 仁君이 밝으면 臣下가 곧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가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였다. 후에 熊川州都督 憲昌이

叛하므로 王이 군사를 출동하여 討伐하였는데 祿眞이 從事하여 功이 있었다. 王이 그에게 大阿滄의 位階를 주매 사퇴하고 받지 아니하였다.(十四年, 國王無嗣子, 以母弟秀宗爲儲貳, 入月池宮, 時忠恭角干爲上大等, 坐政事堂, 注擬內外官, 退公感疾. 召國醫診脈, 曰病在心臟, 須服龍齒湯, 遂告假三七日, 杜門不見賓客, 於是祿眞造而請見, 門者拒焉. 祿眞曰, 下官非不知相公移疾謝客, 須獻一言於左右, 以開鬱悒之慮, 故此來耳, 若不見則不敢退也. 門者再三復之, 於是引見, 祿眞進曰, 伏聞寶體不調, 得非早朝晚罷, 蒙犯風露, 以傷榮衛之和, 失支體之安乎? 曰未至是也, 但昏昏嘿嘿, 精神不快耳. 祿眞曰, 然則公之病, 不須藥石, 不須針砭, 可以至言高論, 一攻以破之也. 公將聞之乎? 曰吾子不我遐遺, 惠然光臨, 願聽玉音, 洗我胸臆. 祿眞曰, 彼梓人之爲室也, 材大者爲梁柱, 小者爲椽橫, 僂者·植者, 各安所施, 然後大廈成焉. 古者, 賢宰相之爲政也, 又何異焉. 才巨者置之高位, 小者授之薄任, 內則六官·百執事, 外則方伯·連率·郡守·縣令, 朝無闕位, 位無非人, 上下定矣, 賢不肖分矣. 然後王政成焉, 今則不然, 徇私而滅公, 爲人以擇官, 憂之則雖不材擬送於雲霄, 憎之, 則雖有能, 圖陷於溝壑, 取捨混其心, 是非亂其志, 則不獨國事溷濁, 而爲之者, 亦勞且病矣. 若其當官清白, 蒞事恪恭, 杜貨賂之門, 遠請託之累, 黜陟只以幽明, 予奪不以愛憎, 如銜焉不可枉以輕重, 如繩焉不可數以曲直, 如是則刑政允穆, 國家和平, 雖曰開孫弘之閣, 置曹參之酒, 與朋友故舊, 談笑自樂可也. 又何必區區於服餌之間, 徒自費日廢事爲哉. 角干於是謝遣醫官, 命駕朝王室, 王曰, 謂卿剋日服藥, 何以來朝. 答曰, 臣聞祿眞之言, 同於藥石, 豈止飲龍齒湯而已哉. 因爲王一一陳之. 王曰, 寡人爲君, 卿爲相, 而有人直言如此, 何喜如焉. 不可使儲君不知, 宜往月池宮, 儲君聞之, 入賀曰, 嘗聞君明則臣直, 此亦國家之美事也. 後館川州都督憲昌反叛, 王舉兵討之, 祿眞徒事有功, 王授位大阿滄, 辭不受.)(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위

록진은 문헌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정신과의사이다.

2-12. 법의학

오늘날의 시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법의학적인 부분을 지적한다면 강간 1회, 殉葬 엄금 1회, 자살 8회가 보인다. 자살은 “縊”·“自縊”·“自刎死”·“自經”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2-13. 기형

기형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머리 뒤에 높은 뼈가 있다.”<sup>53)</sup> “머리가 둘, 몸이 둘, 팔이 넷이다.”<sup>54)</sup>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개”<sup>55)</sup>

2-14. 온천

우리나라는 溫泉療法이 일본보다 덜 발달한 듯 하다. 『삼국사기』에는 1회 나오지만 『일본서기』에는 15회나 나온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十七年 二月에 王弟 逸友·素勃 등 二人 이 謀叛하여 거짓 稱病하고 溫湯에 가서 黨類로 더불어 戲樂함이 종작없고 감히 悖逆한 말을 내었다.”<sup>56)</sup>

의 책(下卷), 334-336·344-345.)

53) “頭後有高骨”(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351·358.)

54) “二頭·二身·四臂”(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04·213.)

55) “一身兩頭”(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387·395.)

56) “十七年, 春二月, 王弟逸友·素勃等二人謀叛, 詐稱病往溫湯, 與黨類戲樂無節, 出言悖逆.”(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308·315.)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친구들과 놀이나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온천은 병치료, 요양과 휴식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 2-15. 醫藥家

訖祗王때에 墨胡子가 고구려에서 신라에 불교를 전해줄 때 포교의 수단으로 불교의 술을 발휘한 기록이 나오고,<sup>57)</sup> 甄萱의 주치의로 訓謙이 나오는데<sup>58)</sup> 구체적인 이들의 행적이 없어 자세하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시대에는 僧醫와 軍醫가 있어 의료를 담당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 2-16. 救恤事業

잘 못먹고 힘 벗으면 자연 병에 걸리기 쉽다. 삼국시대에는 홀아비(鰥), 홀어미(寡), 고아(孤), 아들 없는 이(獨), 늙은이(老), 병든이(病者)가 독자적으로 살아 갈 수 없는 불쌍한 이들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賑恤事業을 하였다. 이 사업은 넓은 의미의 보건복지 사업중의 하나에 들어간다. 『삼국사기』에는 가물고 饑饉이 있을 때 賑恤事業을 했다는 기록이 42회나 나온다.

### 2-17. 佛教醫藥

고대로 갈수록 의약은 종교와 혼재해서 나타난다.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삼국사기』에는 불교와 관련지어 나오는 의약 관련 기록이 5회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기록1 : 五年 …… 三月에 王이 편치 못하여 醫藥과 祈禱도 효력이 없었다. 皇龍寺에 百高座를 배풀어 僧을 모아 놓고 仁

王經을 講讀케 하였고, 百人중 (限하여) 僧되는 것을 許하였다.<sup>59)</sup>

기록2 : 五年 四月에 王이 (病患으로) 편치 못하매 기도를 하고 이내 百五十人의 度僧(僧侶되는 것)을 허하였다.<sup>60)</sup>

기록3 : 十二年 …… 六月에 王이 病患으로 편치 못하여 國內의 獄囚를 赦하고 또 皇龍寺에 百高座를 배풀고 經을 講說케 하였다.<sup>61)</sup>

기록4 : 二年 …… 三月 …… 王이 病患으로 편치 못하매, 囚徒를 寬省하여 殊死(死刑囚) 이하의 죄인을 赦하고 六十人의 度僧(出家)을 허하였더니 王의 病이 나았다.<sup>62)</sup>

기록5 : 十九年 …… 九月에 王이 편치 못하자 무당이 말하기를, 託利·斯卑가 준 병환이라 하였다. 王이 그를 시켜 사과케 하니 병환이 곧 나았다.<sup>63)</sup>

위의 기록은 왕이 병들었을 때 죄수들을 사면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되게 허

59) “五年 …… 三月, 王疾, 醫禱無效, 於皇龍寺, 設百高座, 集僧, 講仁王經, 許度僧一百人.”(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90·103.)

60) “五年, 夏四月, 王不豫祈禱, 仍許度僧一百五十人.”(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05·214.)

61) “十二年 …… 夏六月, 王不豫, 赦國內獄囚, 又於皇龍寺, 設百高座, 講經.”(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25·232.)

62) “二年 …… 三月 …… 王不豫, 錄囚徒赦殊死已下, 許度僧六十人, 王疾乃瘳.”(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26·232.)

63) “十九年 …… 九月, 王疾病, 巫曰, 託利·斯卑爲祟, 王使謝之, 即愈.”(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56·262.)

57)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69·70·80.

58)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406·407·415.

락하는 것 등 질병의 원인을 단순하게 자연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人事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관념이 잘 나타나 있다. 또 佛經을 읽어 병을 치료하는 讀經術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2-18. 사망

죽음과 관련된 기록은 10회 보인다. 물에 빠져 죽는 溺死 2회, 얼어 죽는 凍死 4회, 짐승에게 물려죽는 짐승사 1회, 전쟁으로 죽는 전쟁사 1회, 말라 죽는 瘦死 1회, 남편을 따라 죽은 경우 1회가 있다.

### 2-19. 해부, 생리

『삼국사기』가 전문적인 의서가 아니고 역사서라 그런지 해부를 했다거나 인체의 생리를 뜻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肝腦塗原”<sup>64)</sup>·“肝腦塗地”<sup>65)</sup>·“烙斷股筋”<sup>66)</sup>·“月經”<sup>67)</sup> 등과 “骸骨을 埋葬하였다”<sup>68)</sup>·“骸骨을 거두어 파묻었다”<sup>69)</sup>·“父王의 뼈를 改葬하였다”<sup>70)</sup> 등을 통하여 인체의 생리와 해부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 2-20. 道教醫藥

- 64)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47.
- 65)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248·395-396.
- 66)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414-415.
- 67)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388.
- 68)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63.
- 69)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364.
- 70)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44.

“二年 …… 四月에 唐의 사신 邢昺가 『老子道德經』 등 書冊을 王에게 바치었다.”<sup>71)</sup>

위의 기록으로 보아 『老子道德經』 등 道敎書가 삼국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교적인 색채를 띤 의약이 삼국시대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 2-21. 鍼術

“道宗이 발을 상하니 唐主가 친히 針을 놓아 주었는데, (道宗은) 土山쌓기를 晝夜로 쉬지 않고 무릇 六十日, 延人夫 五十萬을 써서 山頂이 城을 去하기 數丈으로, 城中을 아래로 굽어보았다.”<sup>72)</sup>

침술에 관한 기록은 위의 기록 하나여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唐나라의 침술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고구려에 전해져 고구려 침술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2-22. 遁甲術

기록1 : 十三年 二月에 王都의 老嫗가 化하여 男子가 되고, 다섯 마리의 범이 城안으로 들어왔다.<sup>73)</sup>

71) “二年 …… 夏四月, 唐使臣邢昺, 以『老子道德經』等文書, 獻于王.”(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178·186.)

72) “道宗傷足, 帝親爲之針, 築山晝夜不息, 凡六旬用功五十萬, 山頂去城數丈, 下臨城中.”(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上卷), 378·384.)

73) “十三年, 春二月, 王都老嫗化爲男, 五虎入城.”(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9·16.)

기록2 : 允中の庶孫 巖은 天性이 聰敏하고 方術의 學習을 좋아하였다. 젊어서 伊滄이 되어 唐에 들어가 宿衛하였을 때에, 昀을 타서 스승을 찾아 陰陽家의 術法을 배웠는데, 한 모퉁이의 것을 들으면 미루어서 세 모퉁의 것을 演述했다. 스스로 遁甲立成法을 지어 그 스승에게 드리니, 스승이 慚然한 모습으로 “吾君의 明達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며, 그 후로는 감히 弟子로 대우하지 아니하였다.<sup>74)</sup>

遁甲術이 陰陽論과 관련되어 있고 이 음양론이 의약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면에서 둔갑술이 의약과 관련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이다.

### III. 맺음말

『三國史記』에 기록된 의약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신화 속의 의약내용·전염병·쌍둥이 출산·병명·약물·운동·의료제도·呪願·體質·신경정신과·법의학·기형·운천·의약가·보건복지사업·종교관련 내용·사망·해부생리·도교의약·침술·둔갑술 등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의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의약관련내용으로 볼

것이냐인데, 가능한한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상식적인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의학을 매개로 신화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기록을 『삼국사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쌍둥이 출산에 관한 기록은 7회 나온다. 모두 세쌍둥이 이상이다. 쌍둥이는 드물기 때문에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多産이 축복이고 인구가 곧 국력으로 여기는 고대국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들 기록들은 남아의 숫자가 많거나 최소한 남녀의 수가 같은 경우를 다루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인구증가의 차원보다는 전쟁이 잦던 당시 병력으로서 남자의 중요성이 작용한 면도 보인다. 그 밖에 출산에 관한 기록으로는 기도하여 아들을 낳은 기록, 태몽을 꾸고 20개월만에 金庚信을 낳은 기록, 奇特한 아이 낳은 것을 노래한 시 등이 있다.

역병은 겨울철과 봄철에 극성을 부렸으며, 大疫·疫病·疾疫·疫·疫癘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溫疫보다는 寒疫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 당시 역병에 대한 대응방식은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가뭄·우뢰·장마·饑饉·제철이 아닌데 꽃이 피거나 제철인데 눈이 오지 않는 등 천재지변과 관련해서 나오는 역병기록은 반이 넘는 것으로 보아 역병이 運氣論과 관계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신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삼국사기』가 신라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疫病·病風·喘息 등 몇가지 병명을 제외하고는 아프다는 것만을 표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 『삼국사기』는 의서가 아니기 때문에

74) “允中庶孫巖, 性聰敏, 好習方術. 少壯爲伊滄, 入唐宿衛, 問就師, 學陰陽家法, 聞一隅, 則反之以三隅, 自述遁甲立成之法, 呈於其師, 師慚然曰: “不圖吾子之明達, 至於此也.” 從是而後, 不敢以弟子待之.”(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앞의 책(下卷), 310·313.)



전문적 병명을 기록했다기보다는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던 말이었을 것이다. 또한 병의 기전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 정도다.

牛黃·人蔘·金芝(靈芝)·瑞芝·磁石 등 분명하게 약물로 당시에 쓰였다. 藥食同原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식생활용품중에 일부는 약물로도 활용되었을 터인데 53종이나 된다.

몸을 단련하는 것과 관련된 기록은 사냥, 활쏘기, 말타기 등이 보인다.

신라에는 醫博士·內供奉·供奉醫師·供奉卜師 등의 제도를 두었고, 교육기관으로 孝昭王 元년에 醫學을 설치하여 『本草經』·『甲乙經』·『素問經』·『針經』·『脈經』·『明堂經』·『難經』을 정규과목으로하고 博士 2인을 두어 정식으로 한의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또, 藥典에는 舍知2人·史 6人·從舍知 2人을 두어 약을 전담하였다. 백제에는 약을 전담하는 藥部를 두었다.

기도를하고 소원을 빌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呪願, 觀相보는 것이 의학에도 이용되지 않았을까 추정해볼만한 기록도 보인다. 100세이상 3회, 98세도 1회나 보인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정신과의사인 녹진은 鍼治療·藥物治療·精神治療 등을 당시에 구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법의학적인 부분을 지적한다면 강간 1회, 殉葬 엄금 1회, 자살 8회가 보인다.

“머리 뒤에 높은 뼈가 있다.”, “머리가 들, 몸이 들, 팔이 넷이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 등 기형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친구들과 놀이나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온천은 병치료, 요양과 휴식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僧醫와 軍醫가 있어 의료를 담당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墨胡子와 訓謙의 기록이 보인다.

잘 못먹고 헐 벗으면 자연 병에 걸리기 쉽다. 삼국시대에는 홀아비(鰥)·홀어미(寡)·고아(孤)·아들 없는 이(獨)·늙은이(老)·병든이(病者)가 독자적으로 살아 갈 수 없는 불쌍한 이들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賑恤事業을 하였다.

왕이 병들었을 때 죄수들을 사면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되게 허락하는 것 등 질병의 원인을 단순하게 자연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人事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관념이 잘 나타나 있다. 또 佛經을 읽어 병을 치료하는 讀經術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죽음과 관련된 기록은 10회 보인다. 물에 빠져 죽는 溺死, 얼어 죽는 凍死·짐승에게 물려죽는 짐승사·전쟁으로 죽는 전쟁사·말라 죽는 瘦死·남편을 따라 죽은 경우가 있다.

인체의 생리와 해부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보인다.

『老子道德經』 등 道敎書가 삼국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교적인 색채를 띤 의약이 삼국시대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침술이 발달했으리라는 기록, 둔갑술과 의약의 관련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제한적이긴하지만 우리나라 고대사회 의료의 모습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색인어 : 『三國史記』, 역병, 약불, 의료

제도, 온천, 침술

### 참고문헌

1. 金斗鍾 著.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9.
2. 三木榮 著.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963.

3. 여인석·이규창. 「『삼국사기』에 나타난 의학 관련 기사의 분석」. 『의사학』 1992: 제1권 제1호.

4.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上卷. 初版 14刷. 서울: 乙酉文化社, 1995.

5. 金富軾 등 지음;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下卷. 初版 14刷. 서울: 乙酉文化社, 1995.

### Abstract

Study on Medical Records in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Soon-shik Shin Hwan-soo Choi\*

We tried to observe the features of ancient medical practice by analysing the records related to medicine in the book,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of which content includes the features of medicine in mythology, plague, delivery of twins, drugs, medical system, shamanism, constitutional medicine, psychiatry, forensic medicine, deformity, a spa, medical phrase, health and welfare work, religion, death, physiological anatomy, Taoist medicine, acupuncture, the occult art of transformation and etc. Our initial concern was about where to draw line as of medical field and we defined medicine in more broad meaning.

The book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describes the world of mythology by way of medicine which is not clearly a conventional one.

There appears records of birth of multiple offsprings 7 times in which cases are of triplets or more. Delivering multiple offsprings were rare phenomenon though such fertility was highly admired. This shows one aspect of ancient country having more population meant more power of the nation. Of those medical records conveyed in that book includes stories of childbirth such as giving birth to a son after praying.

---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s,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KIOM)

giving birth to Kim Yoo-shin after 20 months after mother's dream of conception, and a song longing for getting a laudable child.

Plagues were prevalent throughout winter to spring season and one can observe various symptoms of plagues in the record. Of these epidemic diseases, cold type might have been more common than the heat one. Appearance of epidemic diseases frequently coincided with that of natural disasters that this suggests a linkage between plague and underlying doctrine on five elements' motion and six kinds of natural factors.

There exists only a few names of diseases such as epidemic disease, wind disease, and syndrome characterized by dyspnea. Otherwise there appeared only afflictions that were not specified therefore it remains clueless to keep track of certain diseases of prevalence. Since this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wasn't any sort of medical book, words and terms used were not technical kind and most were the ones used generally among lay people. Therefore any mechanisms of the diseases were hardly mentioned.

Some of medicinal substances such as Calculus Bovis, Radix Ginseng, Gaboderma Luciderm, magnetitum were also in use in those days.

53 kinds of dietary supplies appears in the records and some of these might have been used as medicinal purpose.

Records concerning dicipline of one's body includes activities such as hunting, archery, horseback riding etc.

In Shilla dynasty there were positions such as professor of medicine, Naekongbong(內供奉), Kongbong's doctor(供奉醫師), Kongbong's diviner(供奉卜師). As an educational facility, medical school was built at the first year of King Hyoso's reign and it's curricula included various subjects as 『Shin Nong's Herbal classic』, 『Kabeul classic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 Plain Questions of the Yellow Emperor's Classic of Internal Medicine』, 『Classic of Acupuncture』, 『The Pulse Classic』, 『Classic of Channels and Acupuncture Points』 and 『Difficult Classic』. There were 2 medical professors who were in charge of education. To establish pharmacopoeia, 2 Shaji(舍知), 6 Sha(史), 2 Jongshaji(從舍知) were appointed. In Baekje dynasty, Department of Herb was maintained.

Doing praying for the sake of health, doing phrenology also can be extended to medical arena. Those who survived over 100 years of age appear 3 times in the record, while 98 appears once.

The earliest psychiatrist Nokjin differentiated symptoms to apply either therapies using acupuncture and drug or psychotherapy.

There appears a case of rape, a case of burying alive with the dead, 8 cases of suicide that can characterize a prototype of forensic medicine.

Deformity-related records include phrases as follow: "there seems protrudent bone behind the head", "a body which has two heads, two trunks, four arms.", "a body equipped with two heads"

In those times spa can be said to be used as a place for healing, convalescence, and relaxation seeing the records describing a person pretended illness and went to spa to enjoy with his friends.

Priest doctors and millitary surgeons were in charge of the medical sevice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by the record written by Mookhoja(墨胡子) and Hoonkyeom(訓謙).

Poor diet and regimen makes people more vulnerable to diseases. So there existed charity services for those poor people who couldn't live with one's own capacity such as single parents, orphans, the aged people no one to take care and those who are ill.

The cause of affliction was frequently coined with human relation. There appeared the phenomenon of releasing prisoners and allowing people to become priests at the time of king's suffering. Besides, as a healing procedure, sutra-chanting was performed.

There appears 10 cases of death related records which varies from death by drowning, or by freezing, death from animals, death from war, death from wightloss and killing oneself at the moment of spouse's death and etc.

There also exist certain records which suggest the knowledge of physiology and anatomy in those times.

Since the taoist books such as 『Book of the Way and Its Power(老子道德經)』 were introduced in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it can be considered that medicine was also influenced by taoism.

Records of higher level of acupuncture, records which links the medicine and occult art of transformation existed.

Although limited, we could figure out the medical state of ancient society.

**Key Words** :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Plague, Drugs, the Medical System, Spa, Acupuncture